



본란의 기사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행하는 「일간 무역」에서 발췌 게재한 것이며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한국무역협회(Tel : 551-5454)로 연락바랍니다.

1. 세계 무역량 대폭 증가

독일의 유력경제연구소인 HWWA는 올해 세계무역량은 6%에서 내년 7%로 계속 높은 성장세를 보일것으로 전망했다.

HWWA는 최근 선진공업국들의 경기회복세가 안정궤도에 들어섰다면서 이같이 전망하고 특히 올해와 내년도 선진국들의 호경기 하에 서유럽 경제가 성장추진력을 얻어 이 지역 국가들 상호간의 교역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연구소는 또 일본의 경우는 엔고와 내수 경기의 회복으로 수입이 확대될 것이나 미국은 경기회복 속도가 다소 둔화돼 현재의 수입증가 추세가 진정될 것으로 예측했다.

HWWA는 그러나 선진국 전반적으로는 수입이 확대돼 신흥공업국들의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면서 특히 아시아의 4용과 중국을 비롯한 기타 아시아국들 및 라틴아메리카의 신흥공업국들이 수출을 크게 늘리는 호기를 맞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HWWA는 금년 1·4분기중 세계무역량이 지난해 동기대비 7%나 증가했으며 이중 특히 서유럽국가들의 수출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여기에는 엔화 및 달러화에 대한 유럽통화의 평가절하가 크게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2. 미국, 대중통상정책 적극 전략 모색

미행정부는 지난 89년 천안문사건이후 중단

했던 국무부의 통상개발 원조차관의 지원을 재개하는 동시 미수출입은행의 대중국자금지원도 대폭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으로 있다.

미행정부측은 또 공항·발전소 등과 같은 시설을 미국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건설, 일정기간 동안 운영해 건설비용을 회수한 후 중국에 이전해주는 BOT(Build-Operate and Transfer)방식을 중국 측이 적극 이용토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미행정부는 또한 자금지원방식을 중국측에 제시하면서 25개 주요기업의 대표들이 참가하는 이번 대중통상사절단이 교통·통신·환경·에너지 등 사회간접시설 분야에서 60억달러 이상의 사업을 확보토록 한다는 목표를 세워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중통상사절단이 중점 협상할 주요 사업은 크라이슬러사가 다이물러-벤츠사와 결합하고 있는 중국 남부지역의 미니밴조립공장 합작건설 사업, 중국 북동부 지역의 발전소건설사업, 중국 전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항건설사업, 항공산업분야의 교역확대 등이다.

3. 미국, 경제성장 더 가속화될 듯

미국 컨퍼런스보드는 최근 단기금리 인상조치가 경제성장 억제보다는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게 됨에 따라 내년도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4% 수준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또 기업들의 경영개선 노력으로 생산성도 지속적으로 향상돼 경제성장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소비지출이 지속적인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건설(주택부문은 제외)투자 및 수출 부문이 경제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했다.

컨퍼런스보드 측은 그러나 내년에는 상품은 물론 서비스요금도 상당히 오르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금년의 2.7% 보다 크게 높은 3.6% 수준에 달하는 등 심한 인플레이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금년말에는 미연준리가 경기과열과 물가상승을 억제키 위해 또 한차례 금리인상조치를 취할 공산이 큰 것으로 컨퍼런스보드는 예상했다.

컨퍼런스보드는 특히 환율전망을 통해 미달러화와 일본 엔화간 환율은 양국간 무역불균형이 점차 개선되면서 안정세를 보일 것이나 최근 미국의 단기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엔화장세 기조가 지속돼 달러화 시세상승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4. 일본, 특허청, 영어출원 입법

일본 특허청은 미·일 포괄경제협약의 및 지적재산권 작업부회의 합의에 따라 영어출원을 허용하는 등 양국의 합의 항목을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항한 제도재정과 함께 입법화를 도모키로 했다고 일간공업신문이 보도했다. 이를 위해 다음달 상순 최종안을 마련, 가을의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는데, 96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특허청은, 93년 12월의 우루과이 라운드 결정을 토대로 자국내 제도에 결부시키는 제도개정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주요 개정항목은 특허기간을 출원해서 20년으로 통일하고 원자핵 변환방법에 의해 제조되는 물질에 특허를 부여하지 않았던 것을 재검토하고 이용발명에 관한 재정실시권 설정조건을 엄격히 하며 와인 및 위스키의 원산지 명칭을 보호하는 것 등이다.

이번 개정과 함께 미·일 합의 항목을 일괄

처리키로 한 것은 “미·일합의가 뉴라운드의 제도 조화 취지에도 적합한 것”(특허청) 이어서 미국과 일본이 시범을 보임으로써 각국의 제도개정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영어출원 허용은 출원단계에선 영어에 의한 명세서 등의 제출은 인정하지만 그후부터 일본어역을 제출토록하는 것이다.

번역을 서두르는 나머지는 오역 등이 발생하여 외국으로부터의 출원인에 폐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 특허청에선 공정역문 등 가이드 라인은 만들지 않고 있으나 트러블 회피를 위해 용어 통일 등의 연구가 필요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심사가 지연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비판을 받아 온 특허이의 신청기간을 ‘공고에서’ ‘특허부여후’로 변경키로 했다.

이에따라 6개월정도 심사가 빨라질 전망이다.

5. 일본 AV기기시장 회복세

일본전자기계공업회가 최근 발표한 금년상반기(1~6)의 가정용 VTR와 컬러 TV의 일본내 출하대수는 VTR가 전년동기비 6.5% 증가한 203만 9,000대로 상반기 실적으로 6년만에 전년실적을 웃돌았으며 또 컬러 TV는 0.7% 감소한 364만 2,000대로 소폭 감소했으나 가전 각사가 주력하고 있는 와이드 TV의 수요가 크게 증가해 회복의 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6월중 가정용 VTR 출하대수는 전년동월대비 9.3% 증가한 38만 1,000대로 8개월 연속 증가했다.

하이파이형은 17.7% 증가한 288만 9,000대로 대폭 신장했으나 고화질형은 10% 감소한 4만 1,000대로 감소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컬러TV는 1.5% 증가한 62만 9,000대로 2개월만에 전년수준을 웃돌았다. 특히 와이드TV는 크게 신장해 8만 6,000대를 기록했다.

가정용TV는 가전 각사가 엔고를 배경으로

동남아 공장에서 역수입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특히 실세가격이 6만엔 정도의 하이파이형 수입기종을 중심으로 판매를 늘렸다.

미쓰비시전기는 국내 판매 가운데 올해는 전체의 50%, 내년에는 80%가 역수입제품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역수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고도기술로 인해 해외공장으로부터 이전할 수 없는 고화질형 VTR의 판매는 둔화되고 있다. 일본 국내에서 생산하는 고급기종은 10만엔 가까운 실세 가격을 나타내고 있어 소비자의 저가 지향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또 상반기의 컬러 TV 일본내 출하대수는 전년동기비의 0.7% 감소한 364만 2,000대로 6년연속 전년 실적을 밀돌았다.

6. 유럽, 퍼스컴(PC)판매 급증

미국 시장조사사업체인 데이터퀘스트사의 조사결과, 금년 2·4분기중 PC메이커별 실적에 있어서는 1·4분기중 IBM을 제치고 유럽시장 판매 1위에 오른 컴팩 컴퓨터사가 2·4분기에도 최대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컴팩사는 특히 2위 IBM, 3위 애플사와의 판매실적 격차를 확대함으로써 유럽시장에서의 주도권을 더욱 단단히 다졌다.

각 메이커별 시장 점유율은 컴팩사가 12.9%, IBM 10.5%, 애플 6.6%를 각각 기록했다.

2·4분기중 지역별 판매실적에 있어서는 스위스에서의 판매증가율이 40.2%로 가장 높았던 반면 스웨덴이 5.5%로 가장 낮았다.

PC판매는 특히 북부유럽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인 가운데 영국 21.9%, 독일 22.1%, 네덜란드 30.1%, 덴마크 25.6%의 급증세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남부유럽에서는 프랑스에서의 판매증가율이 9.5%, 이탈리아에서 7.6%, 스페

인에서 10.8%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7. 독일경제계 한국시장 개방압력강화

독일 경제계가 한국의 시장개방, 행정규제완화, 금융부문의 신속한 개방, 외국인에 대한 행정기관의 대우 및 사고방식개선,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실행 등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작년 9월 독일업체의 아시아·태평양지역 비즈니스를 강화하기 위해 동지역의 정치경제적 환경을 적극 개선코자 설립된 독일의 아시아태평양위원회(GAPBA)는 최근 한국의 각종 시장진출 규제를 비판하는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 관심을 끌고 있다.

GAPBA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한국이 독일의 경쟁상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그러나 현시점에서 외국업체에 대한 시장개방이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동보고서는 한국이 15대 무역국가로써 1인당 GNP가 일부 EU(유럽연합)국가 보다 높으며 향후 수년간 연평균 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이어 인구 4400만명의 한국은 경제적 불을 타고 있는 중국에 인접하고 있다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독일의 매력적인 투자 및 판매대상 지역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쟁상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8. 브라질 수출세 폐지 추진

브라질 정부는 브라질 수출업체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업체들에 대한 세금감면 방안을 강구기로 했다고 리쿠페로 브라질재무부 장관이 밝혔다.

리쿠페로 장관은 이날 수출업체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브라질 통화가치 상승으로 브라질 수출업체들의 가격경쟁력과 수출채산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데 대처, 수출업체들에 대

한 세금부담 경감방안을 결정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리얼화 제도의 도입목적이 초인플레이를 잡는 데 있기 때문에 리얼화의 환율조정조치는 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브라질 수출업체는 이와 관련, 수출제품에 부가되는 세율이 현재 17.5%에 달하고 있어 세금감면 방안이 시행되면 상당한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브라질 수출업체는 브라질 중앙은행이 새로 도입한 리얼화의 환율을 당초 1달러당 1리얼 수준에서 유지기로 했으나 가치안정을 위해 1달러당 0.93리얼 수준에서 달러화를 매입하면서 리얼화 가치가 급등, 수출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브라질의 월중 무역수지 흑자는 지난 6월의 13억 달러에서 7월에는 8억 달러로 급감한 데 이어 8월에도 더욱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 남미 공동시장 내년에 정식 출범

아르헨티나를 비롯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이른바 메르코수르(Mercosur) 4개국의 정상들은 내년 남미공동시장을 정식 출범시키고 칠레와 볼리비아의 신규회원가입 현상을 개시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들 4개국 정상들은 또 역외 공동관세와 예외규정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이들 4개국 정상들은 5일 이같이 합의하고 이와 관련한 12개협정 및 2개 별도각서에 조인했다.

이날 협정조인으로 메르코수르 4개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역내상품 이동을 자유화하는 동시에 역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공동관세를 부과기로 했다.

그러나 역외 공동관세의 실제운영에 있어서는 회원국별 상황을 감안, 아르헨티나와 브라

질은 2001년까지 자본재의 역외관세율을 14% 수준으로 점진 조정해 나가고 파라과이와 우루과이는 2006년까지 동일 수준으로 맞추어 나가도록 했다.

또 컴퓨터와 통신장비의 역외 관세율은 4개국 모두 2006년까지 16%로 조정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역외 공동관세의 적용제외 대상품목으로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에는 2001년까지 300개품목을 허용, 각국의 개별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우루과이에 대해서는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와 이미 체결하고 있는 쌍무무역협정을 향후 2001년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우루과이는 이에 따라 2001년까지는 특정 중간재를 무관세수입해 조립한 다음 그 제품을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이날 4개국 정상들은 메르코수르 회원국이 기존의 자유무역 지대로부터 수입한 모든 상품에 대해 역외 공동관세를 적용토록 하는 합의도 도출했다.

다만 지리적 특수성이 있는 브라질의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와 아르헨티나의 티에라 델 푸에고 자유무역지대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 이들 2개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는 2013년까지 역외 공동관세를 적용치 않기로 했다.

메르코수르 4개국은 이들 제반규정의 준수 여부를 감독키 위한 메르코수르 무역위원회의 설립에도 합의했다.

4개국정상들은 이밖에 메르코수르의 회원국 확대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고 칠레와 볼리비아를 새로운 회원국으로 가입시키기 위한 협상의 개시에 대한 각서를 양국과 각각 체결했다.

10. 중국, VCR 대량생산 체제로

중국이 오랫동안 수입에 의존해 오던 VCR을 대량생산하는 단계로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

현재까지 중국에는 11개의 VCR 생산업체들이 있으며 이들 업체들의 VCR생산능력은 연간 모두 113만 3,000대 정도이나 그동안의 설비확장 등을 감안하면 올해의 생산량은 모두 15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들 11개 생산업체들은 지난해 고등으로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일본의 마쓰시다전기공업으로부터 첨단 VCR 기술과 제조장비를 수입했다.

이 주식회사는 앞으로 VCR 핵심부품 300만 세트를 생산해 낸다는 계획으로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국내에서 제조된 VCR이 수입을 대체함은 물론 나아가 중국산 TV수상기나 냉장고, 세탁기와 마찬가지로 국제시장에 널리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1. 대만, 올 수출 900억불 호조.

올 하반기들어 대만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7월중 대만의 수출계약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2% 늘어난 788억 달러를 기록, 월별 최고치인 지난 3월의 78억 1,000만 달러에 이어 두번째 규모를 나타냈다고 대만 경제부가 발표했다.

경제부의 양 타이-원 통계국장은 일본 엔화의 강세로 대일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다른 아시아 국가에 대한 수출도 호조를 보인 것이 수출증가의 주요인이라고 밝혔다.

양국장은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대만의 수출계약 실적은 900억달러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일 수출증가는 일본과의 무역역조 개선에도 기여 1~7월중 대일 무역적자는 4.1% 증가한 5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연말까지 적자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양국장

은 전했다.

경제부 발표에 따르면 7월중 미국에 대한 수출계약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5% 줄어든 23억 8,000만 달러에 머물렀다.

그러나 미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증가세를 보여 대중 간접수출 기지로 활용되고 있는 홍콩에 대한 수출은 4.26% 늘어난 14억 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유럽과 일본에 대해서도 각각 14.6%, 30.04%씩 증가한 10억 9,000만 달러, 9억 740만달러의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수출계약 실적의 50%이상이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달성, 이 지역이 최대 수출 시장으로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최대 수출품목인 전자제품 수출계약 실적은 10억 2,000만 달러, 섬유제품 수출은 10억 1,000만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또 정보 및 전기통신제품은 8억 2,000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렸다.

12. 대만, 무역흑자 크게 늘어

지난 2·4분기중 대만의 무역흑자는 34억 6,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0.6%나 확대됐다고 대만 중앙은행이 발표했다.

대만 중앙은행은 금년 2·4분기중 대만의 총수출은 229억 달러, 총수입은 194억 4,000만 달러로 이 기간중 무역흑자가 전년 동기에 비해 5억 9,000만 달러 늘어난 34억 6,000만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 2·4분기중 경상수지 흑자는 전년동기의 16억 3,000만 달러에 비해 15%늘어난 18억 7,000만 달러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대만 중앙은행은 특히 2·4분기의 경상수지 흑자폭은 지난 1·4분기의 흑자 2억 7,000만 달러에 비해 거의 7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지적했다.